

담양군 “축사, 민가와 거리 500m이상 떨어져야”

郡, 악취 민원 등 해소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주민 설문 참여자 과반수가 제한거리 강화 원해

담양군은 축사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축사 시설과 민가와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 제한 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 종류, 규모에 따라 축사를 민가와 100~200m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문 참여율은 68%(3093명)로, 응답자 과반수가 가축사육 제한 거리

를 민가로부터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소(젓소) 500~600m(1577명·51%), 돼지 1000m(1759명·57%), 염소 500m와 700m(1940명·63%), 말·닭·오리 등 기타 가축(500~600m(1904명·62%)) 등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축산인들의 참여율은 618명(97.9%)으로, 소(젓소) 100~200m(460명·74%), 돼지 500m와 1000m(380명·61%), 염소 200m와 500m(367명·59%), 말·닭·오리

등 기타 가축 100~200m(334명·54%) 등으로 응답했다.

기존 조례의 제한 거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은 제한 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축사 시설과 민가와 거리를 기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g@kwangju.co.kr

화순군 귀농 지원 대책 강화 개정 조례안 19일부터 시행

화순군은 귀농귀촌인 유입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한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았으며 지난 5월 입법예고하고 8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 시행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지원계획 수립 규정 신설하고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이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통한 새로운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 공동화 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지난 6일 장성군 황룡면사무소 2층에서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민·관·사 협의회’가 용역조사 업체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로부터 용역조사 방향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장성군 제공>

황룡강 와룡리 일대 지반침하 원인 찾는다

장성군, ‘민·관·사협의회’ 개최... 조사 기간 1년 소요 예상 고려시멘트 측 비용 부담...싱크홀 발생 원인 규명 계획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인 모를 ‘대형 땅 꺼짐(싱크홀)’ 현상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용역조사는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과 지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앞서 지난 6일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민(황룡주민 대책

위)·관(장성군)·사(고려시멘트) 협의회’를 열고 용역조사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조사 업체로 선정된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는 이날 용역조사 목적과 범위, 방법, 기간 등을 설명했다.

고려시멘트 측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용역조사는 이달부터 착수해 오는 2019년 8월까지 착수일로부터 1년이 소요된다.

해외자원개발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와룡리 일대 과업대상 농경지(가로 200m×세로 150m) 일원을 중심으로 전기 비저항 탐사와 시추조사,

시추공 내 촬영, 수리조사 추진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시추 조사는 약 50m 깊이를 뚫은 시추공 8개를 통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이상 지점으로 추정되는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하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와 공동(빈 공간)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석회석 채굴용 건동광산 경도 내 지하수 배수량과 와룡리 일대 월별 강우량을 비교하는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이번 용역 조사의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는 내년 8월께 나올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 권리 보호 한층 강화

담양군이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분, 납세자권리향장 준수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g@

‘명승적벽 1박2일 힐링여행’ 다음달 5·6일 화순적벽문화축제

이서면 커뮤니티센터·망향정

화순군은 10월 5·6일 이틀간 이서면 커뮤니티센터와 망향정 일원에서 제 33회 화순적벽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승적벽 1박2일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실향민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화순적벽 풍류놀이체험, 제1회 전국 퓨전국악 난타 경연대회, 사물놀이,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0월6일에는 제4회 적벽

힐링걷기대회와 화순적벽 작은음악회, 대동한마당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힐링걷기대회는 30여년간 통제됐던 명승지 화순적벽을 맘껏 둘러볼 수 있도록 5km, 10km구간으로 나눠 펼쳐지며 기념품도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각 마을 먹거리를 판매하는 방식부장과 농식품 판매장, 적벽 옛사진 전시회 등도 마련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망향정에서 면사무소와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며 “가족과 함께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화순적벽 문화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담양군은 추석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2018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은 서울광장 용산역, 양천 근린공원, 대전 서구청 등지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열고 햅쌀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무차, 작두콩차, 냉동 죽순, 죽제품 등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담양군은 앞서 지난 8일부터 토요일마다 죽녹원 맞은편 연산강 문화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에 판로를 제



공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있는 담양 농특산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g@kwangju.co.kr

장성군, 메뚜기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착수

장성군이 메뚜기를 ‘정서 곤충’으로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장성군은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곤충을 대중화하기 위해 메뚜기 체험 프로그램 용역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 중인 곤충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한 사업에 나선다.

정서곤충의 역할에 주목해 메뚜기를 학교교육과 치유농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서곤충은 인간의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생명존중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뜻한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메뚜기를 학생들을 위한 정서곤충으로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4개월간 브랜딩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교구 제작, 체험프로그램 홍보물 개발 등에 나선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